

# 재가불교진단 무차대회 연다

## ‘한국불교 재가는 없다’ 주제 19일 대불청 부산지구 주최

### ‘사부대중’ 틀 깨고 새로운 출·재가 관계 모색 위촉된 우바이·우바새들의 자기성찰 자리

한국불교, 특히 재가불교의 현실을 진단하는 재가불자 무차대회가 열린다.

고정화된 사부대중의 틀을 깨고 출가와 재가의 상호 상승적 관계를 모색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는 이번 재가불자 무차대회는 대한불교청년회 부산지구(회장 황국근, 이하 대불청 부산지구) 창립 37주년을 기념하는 행사로 마련한다.

〈한국불교, 재가는 없다〉라는 주제로 19일 오후 5시 부산불교교육대학 강당에서 열리는 재가불자 무차대회는 지역의 청년불교운동을 이끌어온 대불청 부산지구가 비구, 비구니에 비해 상대적으로 위축된 우바이, 우바새들의 자기성찰의 자

리를 마련한다.

불법에 대해 일체의 차별 없이 의견을 나눌 수 있는 무차대회 형식을 빌려 4시간 동안 진행될 이날 행사는 한국불교 1600년사에서 최초로 시도되는 재가불자들의 무차대회라는 점에서 주목을 끈다.

한국불교를 위한 고인, 충고,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될 이날 행사는 김용태 신라대 전 총장의 ‘한국불교의 현실과 재가불자의 역할’이라는 기조 발제를 시작으로 수행, 교육, 조직 분야로 나눈 주제발표가 이어진다. 수행분야에 실상사 학업학림 각각스님의 ‘재가자, 어떻게 깨달을 것인가?’ 교육분야에 곽만연 동아대 교수의 ‘재가불자의 자기 거울-교육’ 조직분야에 ‘최연 중앙신도

회 사무총장의 ‘상가조직의 뼈아픈 현실과 방안’ 등을 통해 문제의식을 공유한 후 부산불교연합회 부회장 혜륜스님, 내원사산각 지율스님, 하만경 부산경남 교수불자회 회장 등의 토론자들이 가세한 활발한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발표자, 토론자는 물론 참여 대중 누구나 자유로운 의견 발표가 가능한 이날 행사는 한국 재가불교 진단을 통한 문제점 자각과 해결책 모색의 자리로 재가불교의 대사회적 역할 제고, 재가불자의 내적, 질적 향상, 재가단체 및 구성원간의 사상적 연대 모색 등의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대불청 부산지구는 이번 무차대회의 효과를 지속적으로 이어가기 위해 참석대중을 중심으로 재가불교의 활성화를 위한 단위조직 결성도 계획하고 있다.

손정현 대불청 부산지구 외무부회장은 “비판을 위한 비판이 아니라 법당은 물론, 수행, 교육, 조직 등에

서 안고 있는 자기모순을 드러내는 자리가 될 것”이라며 “재가자 입장의 문제 해결책을 찾아나가는 값진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의: (051)467-5241

천미희 기자 mhcheon@buddhapia.com

### 통도사 불교청년회 회장단 이·취임법회

통도사 불교청년회는 3월 30일 통도사 설법전에서 창립 11주년 기념 및 회장단 이·취임법회를 봉행했다.

통도사 주지 현문스님, 포교국장 오심스님을 비롯 청년회원들이 참석한 이날 법회에서 그동안 수석부회장으로 활동해 왔던 이종희 회원이 신임회장으로 취임했다.

통도사 주지 현문스님은 “통도사 불교청년회가 수행, 포교에서 모범이 되는 청년회로 더욱 발전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천미희 기자



부석사 의상대재에 참가한 불자들이 3월 31일 무량수전 앞에서 법계도를 들며 정대불사를 하고 있다.

### 영주 부석사 의상대재 봉행

영주 부석사(주지 근입)는 3월 31일 경내에서 의상대사의 업적을 기리는 ‘의상대재’를 봉행했다.

이날 행사는 부석사 주지 근입 스님의 법문에 이어 의상대사 조사당 앞에서 종사열반제를 지내는 순으로 법요식이 진행됐다.

법요식에 이어 스님과 신도, 시민 등 사부대중 500여명은 합장한 채 국내 가장 오래된 목조건물 중 하나인 부석사 무량수전(국보 제18호) 앞마당에 마련된 법계도

를 따라 걸으며 범성계를 염송하는 정대불사가 이어졌다.

지금까지 정대불사는 부석사에서 보관하고 있는 화엄경판인 고려각판(보물 제735호) 636장을 참가자들이 직접 머리에 이고 봉행해 왔으나 이번에는 흐린 날씨 때문에 행사가 축소됐다. 영주 부석사는 매년 2월 29일을 창건주 의상대사 기일로 정하고 ‘의상대재’를 봉행해왔다.

박원구 기자

### 현웅 스님, 대구성당서 참선 특강

#### 종교간 이해와 평화증진 법문



미국 버클리에서 간화선을 지도하는 등 20여 년을 해외포교에 정진해온 현웅스님이 대구 천주교 성당을 방문해 설법했다.(사진)

현웅스님은 3일 대구 천주교 범어동 성당의 오전 미사에 참석해 불교의 대표적 수행법인 ‘참선’에 대한 특강과 함께 종교간 이해와 평화증진을 위한 설법을 펼쳤다.

이날 법문에서 현웅스님은 “참선은 불교만의 전유물이 아니다”라고 전제하고 “묵상을 통해 절대자와의 교감을 이룰 수 있는 것처럼 참선은 생각을 떠나 존재하는 깊은 내면, 즉 진리의 세계를 드러내주는 방편”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웅스님은 저서 ‘묻지 않는 질문’(민속사의 출판기념 법회를 2일 경북 칠곡군 망월사주지 동전에서 가졌다. 박원구 기자

### ‘禪心’ 주제 움직이는 미술 표인속씨 ‘감로심 연구전’

2000년 국제바다미술제 공모전 대상 수상한 조각가 표인속 씨가 선심(禪心)을 주제로 한 키네틱아트(움직이는 미술)를 선보여 관심을 모았다.

3일까지 부산 피카소 회관에서 열렸던 표씨의 ‘감로심(甘露心) 연구전’에서는 선시를 맹인용 점자로 새긴 스테인리스 입방체와 자연석 덩어리가 구동장치에 의해 천천히 아래위로 움직이도록 해, 삶에 대한 불교적 성찰이 표현됐다. 천미희 기자

### 대구지하철 참사 추모글 통허 스님 등 책으로 출간

대구 지하철 참사 희생자 님을 기리고 유가족의 아픔을 달랠 것 각종 추모글이 책으로 엮여질 전망이다.

조계종 다라니 선법회 통허스님과 대구 문인협회는 최근 대구지하철 참사 이후 발표되거나 알려진 추모 글들을 엮어 책으로 발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책자에 실릴 글들은 지하

### 경부고속철 경주역사 지붕·내부 불국사 이미지·문양 등 설계 반영

#### 불국사 이미지·문양 등 설계 반영

경부고속철도 경주역사가 천년고도에 어울리는 전통적인 외관을 갖추게 될 전망이다.

경주시는 3월 31일 경부고속철도 경주역사 기본설계안에서 역사 지붕과 내부공간에 불국사와 전통 건축 이미지와 문양 등을 반영과 함께 전통 문화 전시공간을 확보해 신라 천년 고도에 어

울리는 설계를 추진 중이라고 발표했다.

이와 관련 고속철도 건설공단은 경주역사 건립과 관련해 불국사와 석굴암의 주요 부분을 재현하고, 왕

철 역사에서 시민들에 의해 쓰여졌거나, 그 동안 언론에 보도된 추모글 등 지하철 사고와 관련된 다양한 내용으로 구성될 전망이다.

특히, 이번 모음집은 일반인들의 더 많은 참여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추모원고도 지속적으로 받을 계획이다.

다라니 선법회 통허스님은 “희생자의 님을 기리고 충격적인 사고의 아픈 기억을 통해 다시는 이런 과오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한 기록이 필요해 시작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박원구 기자

통과 포석정 등의 경주지역 유물 등의 이미지를 경부고속철 역사 실내의 건축 및 전시요소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주시 건천읍 화천리에 건설될 경부고속철도 경주역사는 현재 건축 기본설계가 진행 중이며, 연면적 32,000㎡에 지상 3층, 지하 1층 규모로 대합실과 편의시설, 역무 시설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박원구 기자 bak09@buddhapia.com

### ‘2003 팔만대장경 축제’ 열려 9~13일까지, 경관 이운경로 재현

‘2003 팔만대장경 축제’가 9일부터 13일까지 5일간에 걸쳐 경남 합천군과 해인사 일원에서 열린다.

이번 축제의 하이라이트는 9~11일 열리는 ‘팔만대장경 이운경로 재현’이다. 이 행사에는 연인원 1,500명이 참여해 고품격 포에서부터 해인사까지 대장경판을 이운하는 행렬을 재현해 장관을 이룰 예정이다.

박원구 기자

팔만대장경 축제는 이외에도 9일 오후 7시 30분 축제 공연 개막식과 함께 마당극, 사물놀이, 축하공연 등을 시작으로 13일 회향까지 인경체현, 템플스테이, 티베트 만다라 특별전시회, 전통음악회, 지역 특산물 판매 등 다채로운 문화행사가 펼쳐져 지역주민과 관광객들이 한데 어울리는 아름다운 한마당이 될 전망이다.

박원구 기자

### 신라때 추정 토기 30여점 양산 개원사 일대에서 발견

4-5세기경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신라시대 토기 30여 점이 1일 경남 양산 개원사 일대에서 발견됐다.

이날 발견된 토기 중 7점은 비교적 완형이 완벽하게 보존돼 있으며 나머지 30점은 파손된 채 발견됐다.

경남도 문화재 전문요원 신용민씨는 “발견된 토기는 약 4-5세기경 신라시대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양산시는 개원사 일대에서 나온 토기를 통도사박물관에 보관할 예정이다. 천미희 기자

### ‘깨달음의 길’ 주제 연극 생활불교회, 봉축일 기념

대구에서 스님의 출가수행 및 구도행각을 통한 깨달음의 길을 주제로 한 연극이 무대에 올랐다.

(사)대한생활불교회는 불기 2547년 부처님 오신날 봉축기념 공연 ‘그것은 목탁구멍 속의 작은 어둠이었습니다’를 8-9일 양일간 대구문화예술회관 대강당에서 선보인다. 이번 공연은 이만희 작, 박원순 연출로 김현규, 정광진 등 지역의 중견 연극인들이 출연해 극중 탄성과 도발 두 스님의 깨달음을 향한 구도역경을 연극으로 그려냈다. 박원구 기자

### 해운대 달맞이 언덕축제 현각 스님, 삶의 의미 강연

해운대 포럼이 주최하는 제6회 해운대 달맞이 언덕축제가 3-6일 달맞이 언덕 일원에서 개최됐다.

행사 첫째날인 3일 추리문화관에서 열린 ‘명사와의 만남’에서 현각 스님은 “바쁜 현대인들은 자신이 누구인지, 어떤 삶을 원하는지를 깊이 생각하지 않는다”며 “진정한 삶의 의미를 찾고자 하는 사색은 삶을 뿌리째 변화시키는 큰 힘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천미희 기자

### ‘104 신중탱화’ 점안식 선지사 개산 1주년

김해 선지사(주지 원천)는 4일 개산 1주년을 맞아 ‘104 신중탱화’ 점안식을 가졌다.

이날 점안식에서 통도사 부방장 초우스님은 “탱화 속에 담긴 부처님 가르침을 깊이 새긴다면 새로운 발심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법문했다.

‘104 신중탱화’는 안으로서는 부처께 귀의하여 수행 정진하고 밖으로는 불멸 수호의 역할을 원력으로 삼고 있다. 천미희 기자

# 육 법 등 (六法燈)



의정등록 제 2002-33243호



용암사(서울 광진구) 대웅전에 정엄된 육법등



연꽃문양 기본사이즈  
Ø225  
215

## 납골추모함의 종류 (특별 사이즈 및 문양 주문가능)



연꽃문양 납골추모함 (금 색)



연꽃문양 납골추모함 (동 색)



연꽃문양 납골추모함 (철 보)



내호함 (도자기)

고인의 유골을 담은 내호함을 연꽃문양 납골추모함에 봉안하여 보관

## 영혼은 평안하게! 참배는 쾌적하게! .....

납골추모함은 가신이의 영혼을 평안하고 안전하게 모시는 것은 물론 참배까지 쾌적하게 해주는 현재와 미래의 장례문화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납골함을 같은 장소에 많이 모셨을 경우 납골함 자체의 엄청난 무게 때문에 붕괴의 우려가 있으며, 오래된 유골에서는 강한 악취가 생기는 문제점들이 있었습니다.

이화사에서 새로 개발된 신소재 **납골추모함은 가볍고 튼튼한 금속으로 제작** 되었으며 도자기에 비해 월등히 가볍고 외형 또한 아름답습니다.

납골추모함은 납골당과 납골탑이 붕괴되더라도 유골이 소실되지 않

고인 안전하게 유지될 수 있습니다. 위의 여러 문제점들을 납골추모함이 해결함으로써 쾌적하고 편안한 참배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고인의 유골을 화장하여 납골당이나 납골탑에 안치할 경우 안전하고 청결한 상태로 봉안하고 싶은 것은 누구나의 바람입니다.

새로운 납골추모함이 이러한 바람을 실현하기 위해서 오랜 연구 끝에 제작 출시 되었습니다.

**자신있게 권합니다!**  
안전성과 청결성을 갖춘 납골추모함으로 가신이의 영혼을 평안히 모실 수 있게 되길 기원합니다.

# 이 화 사 ☎ 02)392-0925

서울시 중구 중림동 155-2 GS빌딩

**(주)동원전기**    주 소 : 경기도 포천군 포천읍 설운리 290-1  
전 화 : 031)541-1417 / 팩 스 : 031)541-1419

**충만 및 대리점 모집**